

국채금리 하락에 증시 상승, AI 투심 불안은 여전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국채금리 하락에 3 대지수 상승, 방어주 중심으로 순환해

- 미 증시는 DOW +1.08%, S&P500 +0.33%, NASDAQ +0.08% 상승. 헬스케어, 소재, 임의소비재 강세, 에너지, 기술주 약세
- 전일 차입비용 부담에 약세 보인 코어워브(+6.0%)는 주요주주 엔비디아(-1.8%) 젠슨 황 CEO의 낙관적 발언 후 반등, 엔비디아-어도비(+4.6%) 협력 확대 소식에 기술주 내 S/W 상대적 강세
- 한편, TSMC(-1.8%)는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며 투자심리 불안 여전. 엔트로픽도 2개분기 연속 흑자기록했으나, 성장률(YoY +45%) 둔화로 투심 전환에는 실패. HSBC는 은행 및 투자자들이 AI 관련 자금 지원·투자에 더욱 신중해졌다고 코멘트

높은 물가와 저조한 지표 불구, 안전자산 선호에 국채금리 하락

- 9월 PPI YoY +6.3%, MoM +1.3% 전월·컨센 상회, 4년 6개월래 최고치. 근원 PPI도 YoY +5.0%, MoM +0.7% 전월·컨센 상회. 최종수요상품가격(MoM +2.6%) 상승의 80% 가량이 에너지(+10.8%)에서 발생
- 9월 소매판매 MoM +0.8% 전월비하락·컨센 상회. 다만 주유소 매출 상승분(+6.4%)이 주효하여 주유소 매출분 제외시 +0.2% 상승에 그침
- 제조업지표 혼조. 10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25.5로 전월·컨센 상회. 반면 10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20.9 전월·컨센 하회
- 다만 국채금리 크게 하락 10Y 5.087%(-10.3bp) 2Y 4.749%(-5.3bp) 전일 미 나스닥을 비롯한 아시아증시 급락세 이후 안전 자산 선호 양상

국제유가 혼조, IEA 비축유 방출 조치 효과 미미

- 국제유가 혼조 WTI \$98.0(+3.0%), Brent \$105.9(-0.1%). 미 원유재고량 급감에 따른 WTI 강세 압력 뚜렷, IEA의 경유 2천만 bbl 긴급방출을 비롯한 비축유 1억 bbl 방출 조치에도 효과는 미미
- 사우디 아람코 소유 행정건물 피격 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에너지시설 공격 재개 선언 등 지정학 불안 지속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TSM	TSMC	-1.8%	실적발표. 반도체 섹터 전반의 매도세 속에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마진 희석 및 자본지출 확대 부담에 하락 마감. 3분기 매출 \$46.72B(+41.1% YoY)로 컨센서스(\$45.7B) 상회, EPS \$4.60으로 컨센서스(\$0.09) 상회, 매출총이익률은 66.4%로 전분기 대비 1.3%p 하락. 4분기 매출 가이드스 \$52.3~\$54.3B로 컨센서스(\$50.48B) 상회. '26년 자본지출 전망 \$60B ~\$64B 유지, CFO가 '26~'28년 자본지출은 직전 3년치 대비 크게 증가할 것이라 언급. 테라랩 프로젝트 관련 고객사와 생산능력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 밝힘
CRWV	코어워브	+5.9%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긍정적 발언에 장 초반 약세를 딛고 반등 마감. 전일 부채 부담 우려로 급락했으나, 젠슨 황은 코어워브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자본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며 엔비디아의 재무적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 도이체뱅크도 펀더멘털 훼손 징후가 없다며 '매수' 의견 및 목표주가 \$150 유지
SPCX	스페이스X	-2.3%	에어버스·탈레스·레오나르도의 위성 합작사 '프로젝트 브로모'에 대해 EU가 반독점 신속 승인을 추진 중이라는 블룸버그 보도 속 하락 마감. 동 합작사는 스페이스X 등 미국 위성 사업자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며, 아직 승인 신청 전이나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예상. 경쟁 우려 해소 시 신속 승인 가능성 부각. 한편 바클레이즈는 테슬라 주총(12/6 시한) 이전 양사 합병 발표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양사 모두 공식 발표나 공시는 없는 상태
RKLB	로켓랩	-6.6%	중형 발사체 뉴트론의 첫 발사 일정을 '27년으로 연기하며 하락 마감. 1단 추진제 탱크 전방 돔의 탄소 섬유 층 사이에서 미세 기포가 발견돼 해당 부품을 새로 제작하기로 결정. '27년 1분기 교체 부품 생산·검사 및 1단 조립·시험 완료 예정이나 신규 발사일은 미정
SCHW	찰스슈왑	-2.7%	실적발표. 사상 최대 3분기 실적에도 매출 컨센서스 소폭 하회 및 연간 매출·NIM 성장률 전망을 기존 가이드스 하단으로 제시하며 하락 마감